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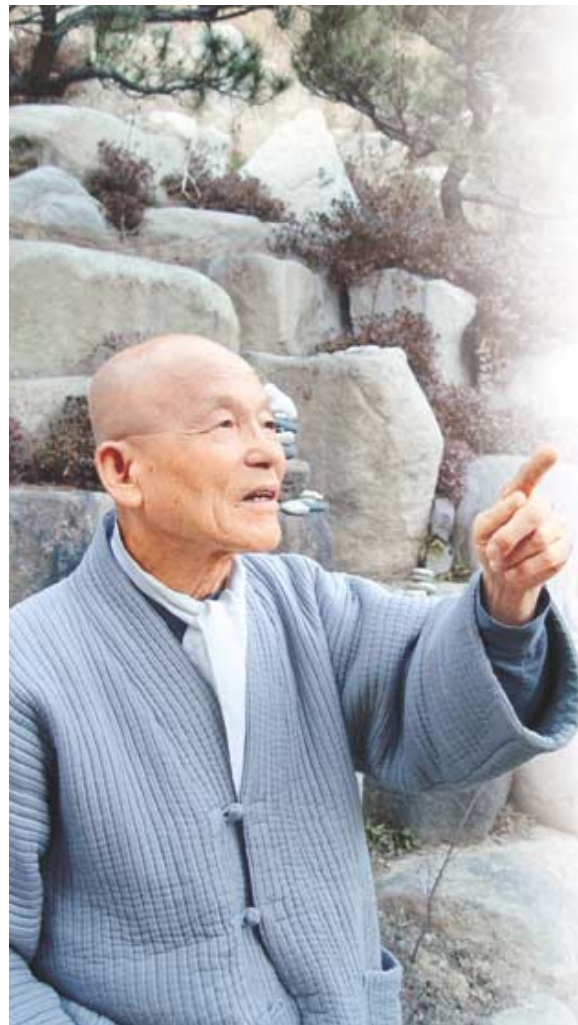
주요

“자기가



송암스님

(죽림정사 주지)



완산을 가리키며 “새해에도 산처럼 변함없이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라”고 당부하는 송암스님.

“얼굴이나 보고 가. 그리고 차나 한잔 해.” 불현듯 2년 전 스님을 처음 보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법문을 청하자 ‘문무왕릉 앞바다의 파도나 보고, 검은사지탑에 부는 바람소리를 듣고 가라’던 말솥이 ‘얼굴이나 보고 가라’는 말솥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2년 전의 시공(時空)이 확 밀려움을 느꼈다.

차관과 찻잔을 챙긴 뒤 이어 송화가루로 된 다식까지 곁들여 접시에 담아 놓으며 ‘차나 한잔하고 가’라며 차를 권하는 스님께 새해를 맞은 마음가짐에 대해 여쭙었다.

“사람들이 새해라고 해돋이를 본다고 바닷가에 몰려들거든. 새해는 무슨 새해야? 만날 뜨는 그 해인데. 천년 전부터 뜨던 그 해야. 가만히 있으면 해가 찾아오는데, 사방 찾아다니고 그래. 다 부질없는 일이지.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질문과 함께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노스님(은사스님인 경봉 스님을 말한다) 모시고 극락암에 있을 때, 32살 먹은 젊은 부인이 와서 큰스님을 꼭 보아야겠다고 해. 그래서 무슨 일이나고 물었지. 그랬더니 내년에 죽을 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내가 ‘내가 볼 때 죽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또 물었지.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어디 가서 물어 봤더니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살고 싶냐’ 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물어서 애원을 하는 거야. 사는 방법이 있다. 내 말만 들으면 꼭 산다. 그 빌어먹을 죽는다는 생각만 놔 버려라. 그 생각만 없으면 살고, 그냥 있으면 죽는다. 집안 살림살이 잘 사고 애들이나 잘 보살피면 되지 공언히 돌아다니면서 돈 허비하고 죽을 병 얻고 다니느냐고 호통을 쳤지. 그러고 가더니 몇 년을 두고 스님 법회에 다니면서 안 죽어. 허허허.”

일체를 놓아라. 스님의 방하(放下)에 대한 가르침은 편하고 수월한 삶의 길을 열어 보인다. 삼재기도를 해 달라는 불자에게는 ‘삼재를 내놓으면 없애주겠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이사가는 날을 택 해달라고 하면 ‘날씨 좋고, 일손 많은 날로 하라’고 충고한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곧바로 자유롭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스님의 법문은 이처럼 ‘불교는 이래서 좋다’거나 ‘이래서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만한 삶의 지혜를 들려줄 뿐이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술술 흘러 나온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순간 순간이 새해”라고 진정한 새해 맞이할 당부한 스님은 권했던 종교관도 놓아버릴 것을 당부했다. “사람이 나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종교가 생긴 거야. 종교가 있고 사람 있는 것인데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맹신, 광신하는 이들이 많아. 심지어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자기들만 천국에 올라간다는 얘길 하는 이들도 있잖아? 얼마나 욕심이 두꺼웠으면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자기들만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얘길 하느냐 말이야. 제자리를 모르니까 그래. 몇 미터 꼭대기가 하늘 꼭대기야? 지금 앉아 있는 여기가 하늘꼭대기야. 이 자리가 극락이고 이 자리가 천당인 줄 알아야 해. 며칠 전에도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한사람이 여기에 안 들어와. 천주교인이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



경전을 통해 본 붓다

흔히 불교를 기도와 신앙을 강조하는 유일신교의 구별하여 자력(自力) 종교라고 한다. 초기 불교의 불타관(佛陀觀)을 살펴보면 붓다는 기도의 대상이나 의존의 대상이 아니다. 붓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는 이른바 전능한 구제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담마파다(Dhammapada)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구세주이지,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겠는가?”라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그럼 과연 붓다는 우리 중생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붓다는 중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당신의 역할을 “길을 가르쳐 주는 길잡이”로 밝히고 있다. 붓다는 고통에서 벗어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붓다가 남겨놓은 약도를 가지고 열반이라는 보물섬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 음의 경전은 전하고 있다.

중부 니카야의 가나카 목갈라이나 경전

서 더 가면 어느 읍에 이를 것이냐. 이렇게 계속 가면 왕사성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네 말을 듣고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가다가 얼마 안 가서 곧 바른 길을 버리고 나쁜 길에 헤매는 경우 그는 왕사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왕사성에 가는 길을 묻는다면 너는 앞서 지시한 것처럼 정확하게 가르쳐줄 것이다. 이 사람은 그대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시한대로 걸어가면 왕사성에 도달할 것이다. 목갈라이나여!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왕사성에 이르지 못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왕사성에 도착하였다. 그대는 길잡이로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었다. 누구에게 허물이 있는가?

“저에게는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제가 왕사성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첫째 사람은 제가 가르쳐 준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붓다는 다음과 같이 당신과 제자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도 또한 제자들의 열반 성취에

“자기 자신이야말로 구원자 나는 단지 길을 가르쳐 줄 뿐”

(Ganakamoggallana-Sutta)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자.

이 교도인 가나카 목갈라이나(Ganaka Moggallana)는 붓다께 여쭙었다. “붓다는 모든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두들 구경의 지혜를 얻어 반드시 열반을 얻게 됩니까?” 목갈라이나의 질문에는 붓다의 교화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붓다가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제자들을 모두 열반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힐난이다. 붓다는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얻지는 못하여 혹 얻는 자도 있고, 혹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대답한다.

붓다의 대답에 목갈라이나는 만족해 하며 붓다가 무능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다시 묻는다.

붓다는 반문한다. “그대는 왕사성이 어디에 있는 지를 알고, 또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나는 왕사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왕사성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내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여기서 이 길을 따라 가면 어느 마을에 이르고, 그 어느 마을에

책임이 없다. 내가 길잡이가 되어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지만, 혹은 구경의 열반을 얻기도 하고 혹은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것은 단지 각자 정진하는 수행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단지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붓다는 당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단지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할 뿐이므로 제자들은 정확하게 붓다의 지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 길은 각자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붓다가 중생을 짊어지고 열반이라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쁜 꿈에 시달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을 깨우는 것이다. 아기의 꿈속으로 들어가 괴물을 퇴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붓다는 무지의 잠에서 꿈에 집착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깨어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꿈을 꾸며 꿈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실재로 여긴다. 꿈속에서 출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꿈속에서의 일들은 모두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날 것을 가르치는 붓다는 우리의 꿈속까지 들어와 악마를 퇴치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 놓으면 곧 자유로워

금강불교대학 2548년(2004)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서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학교과정, 지역(기수),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It details admission requirements for various Buddhist studies programs.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통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영우동삼통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분당 대광사 031-715-3000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공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법장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성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음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중-동국대학교수 서윤길-동국대학교수 장충식-동국대학교수 김상현-동국대학교수 이봉춘-동국대학교수 조용길-동국대학교수 박경준-동국대학교수 김용표-동국대학교수 권만준-금강대학교수 최중석-동국대학교수 허경구-동국대학교수 김승일-국민대학교수 이동우-동국대학교수 최기표-동국대학교수 정성준-동국대학교수 최봉수-동국대학교수 오지연-동국대학교수 김은희-동국대학교수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